"구직 청년에 교통수당 30만원 드려요"

광주시, 드림사업 1800명 모집 대중교통 전용카드 발급 전국 버스·지하철·KTX 이용

광주시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 참여자 1800명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구 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2017년 시행 이후 5800명이 넘는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19~34세,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이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직 장가입자 25만2295원,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이다.

광주시는 거주지 요건, 가구소득 등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 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부 과액 기준)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자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 페이지(www.gjdream.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할수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받아 전국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탑승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주 내 에서는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카 드 사용처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청년 교통수당 드 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페이시스 상담센터(601-006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광 주청년드림) 문의도 가능하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고용악화가 지속되 는 상황속에서도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청년 에게 청년 교통수당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 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홍보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1' 공동 홍보관을 방문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홍보하고 있는 지역 기업과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3일부 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시의 인공지능 유치기업인 티맥스에이아이, 이스트소프트, SK텔레콤, 스프링클라우드, 테스트웍스, 럭스로보, 에

이모를 비롯한 네이버클라우드, 쿠팡, SSG닷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4차산업 관련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만든다

12월까지 91억원 투입 자원관리도우미 800명 배치 분리배출·자원재활용 등 안내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사업 에 집중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는 쓰고 버 리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82억원, 시비 9 억원 등 총 91억원을 투입해 공동·단독주택에 자 원관리도우미를 800여 명 배치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함 508개 설치, 홍보현수막 3700개 게첨, 홍보물 4000장 배부, 단지 내 안내방송, 시• 구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자원관리도우미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품 사전 선별, 투명페트병 라벨이나 종이상 자 테이프 분리 유도 등 자원재활용품을 고품질화 하는 활동을 한다. 시는 자원관리도우미 채용시 취 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 주민을 우선 채용해 침체한 지역경제와 서민 생계를 돕는다.

또 동구 산수동·지산동·지원동, 북구 용봉동 등 4개 동을 자원순환마을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주 체적으로 나서 불법투기 근절, 올바른 재활용 분 리배출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가와 원룸

촌 등이 많은 이들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불법투 기가 성행하고 이물질이 섞인 재활용이 배출 많은 곳으로 꼽힌다.

시는 이 밖에도 내년까지 2년간 100억원을 투입 해 쓰레기 제로마을 만들기, 도시기후탄력성 강화 사업, 자원순환 교육실천 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 레기 줄이기 교육 등에 나선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의 발생 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 는 처리하는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 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족 다양성 담은 컷툰 모집 합니다

광주시 7월19일~8월1일 접수 손그림·그래픽 이미지 등 출품

광주시는 "28일부터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 한 '가가호호 컷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이번 공모전은다문화·비혼·한부모·조손·입양 가족·1인가구 등 다양해져가는 가족의 형태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분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용 컷툰으로, 광주시의 가족다양성 슬로건인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를 주 제로 손그림 또는 그래픽 이미지 2장 이상을 출 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7 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이메일(cuttoon123@ 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1, 2차)와 대국민 심사(3차)를 거쳐 8월18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며, 대상 1 명(150만원),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3명(각 30만원)과 참가상 30명(각 문화상품권 1만원)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070-4238-6767)도 가능하다.



당선작은 영상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가 족의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콘텐츠로 활 용할 계획이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과거에 비해 가족 다양성의 수용과 가족 개념의 확대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차별적 시선이 남아있다"면서 "가족의 여러 형태를 차 별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하철역에서 민원업무 해결하세요

광주도시철도・서구청 상무역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 서구는 "광주시 서 구 상무역 대합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 고 지난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라 각종 행정서류 발 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 없이 출퇴 근길이나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상무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도시철도 운행시간인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 운영 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외한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 복지 ▲농촌 ▲병적 ▲지방세 ▲교육 ▲국세 등과 관련한 9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서구청과 함께 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공간인 지 하철역에서 행정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송정역 주말 시내버스 증편 운행

주차빌딩 완공 내년 10월까지 토·일요일 경유버스 110회 늘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 공사 기간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내년 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광주송정역 경유 시 내버스를 현행보다 110편을 증편 운행한다"고 27 일 밝혔다.

증편 노선은 광주송정역 경유 좌석02번, 송정 19번, 송정29번, 송정33번, 진월75번, 송정98번,

선운101번 등 7개 노선으로 주말 운행횟수를 평소 보다 110회 증가된 13% 증편 운행한다. 배차 간 격도 평균 3~6분 단축됐다.

증편 운행에 따른 운행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 행정보시스템(https://bus.gwangju.go.kr) 게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 공사는 주차난 개선 을 위해 광주송정역 주차장 부지에 현재보다 4배 정도 큰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 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